

(2) 순천의 농산물

순천의 농산물은 무척 그 종류가 다양하다. 따라서 몇 가지 품목으로 나누어 순천지역의 농업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미곡·맥류

미작의 재배면적과 수확고를 살펴보면 전남지역의 경우 갯미(粳米: 메벼) 164만 1,880정보, 나미(糯米: 찰벼) 8만 9,305정보, 육미(陸米: 발벼) 1만 8,719정보로 총 174만 9,904정보였다. 이들의 수확고를 보면 갯미 214만 3,548석, 나미 8만 8,981석, 육미 1만 4,041석 계 224만 6,570석이었고, 1단보당 수확고는 갯미 1,104홉, 나미 996홉, 육미 698홉이었다.

순천의 경우 미작 재배면적을 보면 갯미 재배면적은 1만 2,908정보, 나미 682.4정보, 육미 17.7정보로 총 1만 3,608.1정보였다. 이들의 수확고를 보면 갯미 16만 5,707석, 나미 6,974석, 육미 142석으로 총 17만 2,823석을 생산하였다. 단보당 수확량은 전남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보면 갯미 1,283홉, 나미 1,169홉, 육미 802홉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생산성 향상에 좋은 조건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미곡 작부면적·수확고

구분 지역	작부면적(반)				수확고(석)				1단보당 수확고(홉)		
	갯 미	나 미	육 미	계	갯 미	나 미	육 미	계	갯 미	나 미	육 미
전 남	1,641,880	89,305	18,719	1,749,904	2,143,548	88,981	14,041	2,246,570	1,104	996	698
순 천	12,908.0	682.4	17.7	13,608.1	165,707	6,974	142	172,823	1,283	1,169	802

출전: 『전남사정지』상, 경인문화사, 1990, 139쪽.

한편, 관목할 만한 변화로 맥류 이모작 논면적이 전남은 1909년 11.2%에서 1936년에는 55.0%로, 전북은 5.0%에서 53.0%로 각각 증대되었던 점이며, 이로써 쌀보리의 생산량이 특히 증대되었다. 그러나 전남·전북의 맥 이모작지가 경남·경북에 비해 낮았던 이유는 논 배수불량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순천지역의 맥류 작부면적은 논 4,727.4반, 밭 4,380.0반이 식부되었고, 수확고는 논 4만 8,360석, 밭 4만 4,692석이 생산되었다. 단보당 수확고는 대맥이 논에서 1,128홉, 소맥이 749홉, 나맥이 82홉 생산되었다. 밭에서는 대맥이 819홉, 소맥이 652홉, 나맥이 737홉 생산되어 비교적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이모작답 보리 작부면적

(단위: 정보·%)

구 분 지 역	1909①		1936③	
	작부면적	비율②	작부면적	비율②
전 남	13,122	11.2	62,963	55
전 북	3,522	5.0	37,386	53
경 남	18,019	21.5	92,753	89
경 북	30,210	26.0	89,446	92

비고 : ①은 『한국농회보』 제6권 제4호, 1911을 참조.

②는 도별 대·소맥 답리작부 면적비임.

③은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

순천의 맥류 작부면적·수확고

(1928. 현재)

구 분		대 맥	소 맥	나 맥	계
작부면적(반)	답	3,229.8	530.8	966.8	4,727.4
	전	3,183.5	263.7	932.8	4,380.0
수확고(석)	답	36,451	3,979	7,930	48,360
	전	36,086	1,723	6,883	44,692
단보당 수확고(홉)	답	1,128	749	82	
	전	819	652	737	

출전 : 『현남사정지』상, 경인문화사, 1990, 171쪽.

순천의 두류는 대두 2,075.0반이 식부되어 9,796석이 생산되었고, 소두는 436.5반이 식부되어 1,611석이 생산되었다. 총 3,633.4반이 식부되고 1만 1,737석이 생산되었다.

순천의 두류 작부면적·수확고

(1929. 현재)

구 분	대 두	소 두	녹 두	낙화생	계
작부면적(반)	2,075.0	436.5	94.6	3	3,633.4
수확고(석)	9,796	1,611	323	7	11,737
단당 수확고(홉)	472	348	341	2,333	

출전: 원남사정지』상, 경인문화사, 1990, 176쪽.

② 원예작물(園藝作物)

호남지역의 무, 배추, 사과 생산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고구마와 배의 생산비중은 증가하였다. 무와 배추의 생산비중이 감소되었던 이유는 함경, 경상, 충청도에서 상대적으로 생산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전남의 채소 작부면적·수확고

(1929. 현재, 단위: 정보·관)

구 분	감 저	마령서	나 도	백 채	감 과
작부면적	6,470.0	337.1	3,477.2	2,232.6	592.2
수 확 고	17,184,368	615,693	8,178,630	4,198,168	1,244,758

출전: 원남사정지』상, 경인문화사, 1990, 180쪽.

전남의 원예작물인 감저(甘藷)의 작부면적은 6,470.0정보이고 1,718만 4,368관이 생산되었으며, 마령서는 337.1정보에 61만 5,693관이, 그리고 무·배추·오이 등이 다량 재배되었다. 원예작물 가운데 전남의 사과 생산비중이 감소한 것은 황해, 평안, 함경지역에서 집약적으로 증산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고구마의 생산비중 증대는 남·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장려에 원인이 있으며, 배의 증가경향은 금촌추(金村秋)·장십량(長十郎) 등의 신품종을 나주 등지로 끌어들이어 생산단지화한 데 원인이 있다.

우선 일제 초기에 전남 원예작물의 생산을 개괄해보면, 채소는 광주와 목포 등 도시 근방에서 왕성하였고, 이미 온상재배가 시작되었으며, 중국인이 재배기술을 보급하였다. 한편 과수는 채소와 달리 경험부족과 경영부실로 말미암아 생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하여 광주·나주·무안·순천 등지에서는 폐기 직전까지 이른 경우가 허다했고, 1920년대에 다시 확장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남 과수종별 재배주·수확고

(1929. 현재, 단위: 주·관)

구 분	사 과	배	포 도
재배주수	23,572	48,091	4,588
수 확 고	220,655	486,129	7,995

출전: 원남사정지』상, 경인문화사, 1990, 182쪽.

배는 장십량·만삼길·명월·금촌추·서양배 등이 4만 8,091주에서 48만 6,129관이나 생산되었고, 특히 나주에서는 30만 3,869관을 생산하여 다른 지방으로 이출하였다. 또한 사과는 홍옥·국광·왜금(倭錦)·진옥(陳玉)·옥(旭)·봉황란·백룡 등이 2만 3,572주 식재되어 나주·무안·영광·광주지역에서 대구나 평양산에 손색없는 품질의 것이 22만 655관이나 생산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포도는 광주·여수·무안에서 주로 생산되었고, 곡성·구례지방에서도 다소 생산되기에 이르렀다. 1929년에 사과의 재배주수는 2만 3,572주로 22만 655관을 생산했고, 배는 4만 8,091주로 48만 6,129관, 포도는 4,588주에서 7,995관을 생산했다.

③ 공예작물(工藝作物)

전남의 공예작물 생산비중 변동실태를 살펴보면, 육지면은 일제 초기에 전국의 94.8%에서 24.1%로, 재래면은 4.37%에서 1% 미만으로, 삼은 7.3%에서 6.7%로 점차 감소했다. 그 이유는 일제 초기에 전남을 중심으로 권장했던 생산체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깨·들깨를 비롯한 기타 특용작물은 1910년부터 전국의 8~9% 수준을 점유하고 있었다.

섬유류 작물로 전남에 재배되었던 품목은 삼, 모시, 청마, 닥(楮), 왕골 및 목화 등을 들 수 있다. 삼은 주로 순천·곡성·화순·구례·광양·담양·보성·나주 등지가 주산지였고, 저마는 제직기가 개발·보급되면서 생산이 증대되어 장흥·고흥·함평·구례·보성·영암이 주산지가 되었다. 닥은 제지용으로 곡성·장성·구례에서 주로 생산되었고, 왕골은 돛자리 및 수제품으로 이용되었으며, 특히 곡성·옥과의 옥좌는 도시에서 수요가 컸다. 참깨는 무안·나주·고흥·해남에서, 들깨는 보성·장성·나주에서, 피마자는 보성·화순·함평에서, 비파는 나주에서, 제충국(除蟲菊)은 무안에서, 그리고 박하는 광주와 나주에서 주로 생산되었다. 특히, 전남의 면화는 전남산업의 특징이었던 삼백(三白: 면화·누에·쌀), 이흑(二黑: 김·무연탄), 일청(一淸: 죽제품)에서 삼백 중 하나였다. 육지면은 1904년에 고하도(高下島)에서 재배되기 시작하였고, 1905년에는 면화재배협회를 설립하였다. 1906년에는 목포출장소를 개설하였고, 1908년에는 임시면화재배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1910년에는 권업모범장 목포지장을 설치·발전시켰다. 1919년부터 1929년까지는 생산력 증대를 위한 재배개선 확장시기였다. 경작면적 25만ha에서 2억 5,000만 근의 생산을 목표로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인 남면북양정책(南棉北羊政策)으로 전국 작부면적 50만 정보에서 실면(實綿)을 6억근 생산토록 계획하였다.

면화 작부면적·수확고

(1941. 현재)

구분 지역	작부면적(정보)				수확량(근)			
	육지면	재래면	계	비율(%)	육지면	재래면	계	비율(%)
전 남	69,146	-	69,146	21	51,682,787	-	51,682,787	25
전 국	317,056	9,806	326,862	100	199,620,226	4,607,434	204,227,660	100

출전: 전라남도농촌진흥원, 『전남농촌진흥사』, 1994, 120쪽.

1941년에 면화의 작부면적은 전국의 21%를 전남이 차지하였고, 수확량은 5,168만 2,787근으로 전국의 25%를 차지했다.

전남·순천 면화 작부면적·수확고

(1928. 현재, 단위 : 정보·근)

전 남			순 천		
작부면적	수확고	반당수량	작부면적	수확고	반당수량
61,522.1	62,760,989	102	1,633.5	1,554,978	95

출전 : 『현남사정지』상, 경인문화사, 1990, 195쪽.

기타 섬유작물

(1929. 현재, 단위 : 정보·관)

구 분		대 마	저 마	청 마	닥	완 초
전 남	식부면적	1,870.9	493.8	2.3	164.3	397.5
	수확고	415,001.0	50,570	461	35,724	150,138
순 천	식부면적	411.5	7.7	-	1.2	24.9
	수확고	91,277	2,094	-	372	6,685

출전 : 『현남사정지』상, 경인문화사, 1990, 184쪽.

1928년 전남의 면화 작부면적은 6만 1,522.1정보였고, 생산량은 6,276만 989근이었으며 반당 수확량은 102근이었다. 반면 순천은 1,633.5정보에 155만 4,978근이 생산되었고 반당 수확량은 전남보다 약간 적은 95근이었다.

전남에는 면화 이외에 대마, 저마, 청마, 닥, 완초 등이 재배되었는데 대마는 41만 5,001.0관이 생산되어 중요 섬유작물의 하나였다. 순천에서도 411.5정보의 대마가 재배되어 9만 1,277관이 생산되었다.

전남·순천의 기타 특용작물

(1929. 현재)

구 분		호마(석)	임(석)	곤마(석)	기유(관)	제충국(관)	박하(관)
전 남	식부면적(정보)	1,661.3	553.6	153.4	1.0	19.0	42.6
	수확고	5,057	2,378	1,092	2,500	4,900	69,869
순 천	식부면적(정보)	32.3	28.4	11.4	-	-	2.8
	수확고	98	95	117	-	-	1,380

출전: 『전남사정지』상, 경인문화사, 1990, 185쪽.

그외에도 전남과 순천에서는 호마(胡麻), 임(荏), 곤마(崑麻), 기유(杞柳: 구기자), 제충국, 박하 등 많은 섬유 및 특용작물이 생산되었다.